



19일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정제공장 준공식에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왼쪽에서 6번째)과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왼쪽에서 7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 인니 대형팜 기업 인수 정제공장 준공해 바이오체인 확장

인니 삼푸르나 아그로 경영권 확보
12만8000ha 대형 팜농장 추가 편입
글로벌 팜사업 외연 본격적으로 확대
東칼리만탄서 연50만톤 공장 준공
바이오 밸류체인 완성단계 진입 평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대형 팜 기업 삼푸르나 아그로를 인수하고 현지 팜유 정제공장을 준공하면서 팜 종자 개발부터 바이오연료 원료 생산까지 아우르는 풀밸류체인을 완성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상장사 삼푸르나 아그로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 팜사업 밸류체인 확장을 위한 이번 투자 규모는 공시일 기준 환율 적용 시 한화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인수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12만8000헥타르의 팜 농장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기존 인니 파푸아 농장을 포함하면 총 15만헥

타르 규모의 글로벌 영농 기반을 갖추는 셈이다.

삼푸르나 아그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과 칼리만탄섬 전역에서 팜 농장을 운영하는 현지 대표 상장 기업으로, 자국 시장 점유율 2위의 팜 종자 전문 회사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팜 농장은 이미 팜 열매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인수 초기부터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팜 농장 사업은 나무를 심은 후 3~4년 뒤부터 수확이 가능하고, 20년 이상 생산이 이어지는 장기 고수익 구조의 사업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파푸아에서 처음 팜 농장 개발을 시작해 2016년 상업생산에 들어갔으며 현재 연간 21만 톤의 팜유를 생산하는 착유 공장 3기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팜 농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지난해까지 연평균 영업이익률 36%에 달하는 등 그룹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같은 날 인도네시아 동(東)칼리만탄 발릭파판에 GS칼

텍스와 공동 설립한 팜유 정제법인 PT. ARC 준공식도 개최했다.

PT.ARC의 지분은 포스코인터내셔널 60%, GS칼텍스 40%으로 구성되며 총 투자금은 2억1000만 달러이다. 이번에 준공한 공장의 정제 능력은 연 50만 톤으로, 이는 국내 연간 팜 정제유 수입량의 약 80%에 해당한다.

정제공장은 지난해 5월 착공 이후 준공과 시운전을 거쳐 연내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 농장에서 생산한 팜 원유를 PT.ARC에 공급하고, 여기서 생산된 정제유는 인도네시아 내수뿐 아니라 한국·중국 등으로 판매한다. GS칼텍스는 정제시설 운영 효율을 높이고 한국 시장에 바이오디젤용 정제유를 공급할 계획이다.

포스코 그룹 관계자는 “포스코그룹은 글로벌 팜 시장에서 선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국내 식용 유지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팜유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식량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신세계푸드, 사업축 재정비 버거·베이커리·B2B 체질전환

급식 매각으로 수익 중심 전환
노브랜드버거 가맹 확대 가속
식자재 B2B 판매 연계 성장

신세계푸드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조직·사업 구조를 송두리째 뒤엎는 초고속 재편에 돌입했다. 40년 가까이 회사의 한 축이던 단체급식 사업을 과감히 매각한 데 이어 프랜차이즈 버거·베이커리·식자재 B2B 등 성장성이 높은 영역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이사 교체까지 단행하면서 외형 중심의 확장 전략에서 소비자 접점 확대와 본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단체급식사업부를 아워홈 자회사 고메드갤러리아에 1200억 원에 매각했다. 국내 급식 시장 톱5 규모, 지난해 매출 2754억원을 기록한 굵직한 사업부문을 정리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극대화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급식 매각 절차는 오는 이달 중 마무리되며 아워홈은 인수 작업을 위해 총 1313억원을 고메드갤러리아에 출자했다.

신세계푸드는 급식 사업의 빈 자리를 버거·베이커리·식자재 B2B 등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매출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지난 1~2년간 ‘노브랜드피자’, ‘베러푸즈’, ‘스무디킹’, ‘보노보노’ 등 비주력 사업도 잇따라 철수하면서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9% 증가하며 재편 효과가 가시화됐다.

재편의 중심축에는 ‘노브랜드버거’가 있다. 신세계푸드는 급식 부문의 공백을 메울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버거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노브랜드 버거는 올해 10월 기준 230개까지 확대됐다. 직영점은 약 20개, 가맹점은 210여 개다. 회사는 가맹점 교육을 위한 ‘NBB 아카데미’를 확장 운영하고, 콤팩트 매장 도입으로 창업비용을 최대 60%까지 낮추는 등 가맹 확대 중심 확장 전략을 본격화했다.

신세계푸드는 패티·식자재 등 B2B 납품 사업과 연계해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브랜드버거는 패티·채소 등 대부분의 식자재를 신세계푸드가 공급하는 구조다. 가맹점이 늘수록 식자재 매출이 동반 확대되는 셈이다. 신세계푸드가 노브랜드버거를 그룹 핵심 사업으로 삼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AI 우려 과장… 메모리 선순환 본격화

》1면 ‘코스피 4000선 탈환…’서 계속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세니엑 수석 투자 전략가는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AI 버블이 터질 것이라는 걱정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면서 “우리는 AI 주식이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 매입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

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AI의 선순환 구조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새로운 AI 모델, AI 스타트업, 다양한 산업, 다양한 국가의 AI 수요가 메모리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디램 가격 강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지역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는
산업, 인재, 기술의 융합을 지향하며 혁신을 선도합니다.

경남의 확실한 변화, 경남규제자유특구가 열어갑니다!



무인선박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수산물



수소모빌리티



차세대 청탄위성

규제자유특구 신규참여, 투자 유치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규제자유특구 참여문의 ☎ 055-211-3024 (경남도청 산업정책과) ☎ 055-259-3325 (규제혁신추진단)

